

GS리테일-제주

농심켈로그-서천 한산

피자알볼로-임실치즈

롯데슈퍼-홍성

유통, 농촌과 만나면 “품질신뢰 + 지역상생 Up”

유통·식품업계의 상생전략

쌀소라 첨가 ‘제주해물라면’ 판매 하남돼지집-도드람과 협력 맺어

유통·식품업계가 국내 농축수산물과의 상생 발전 및 품질 강화를 위해 몰두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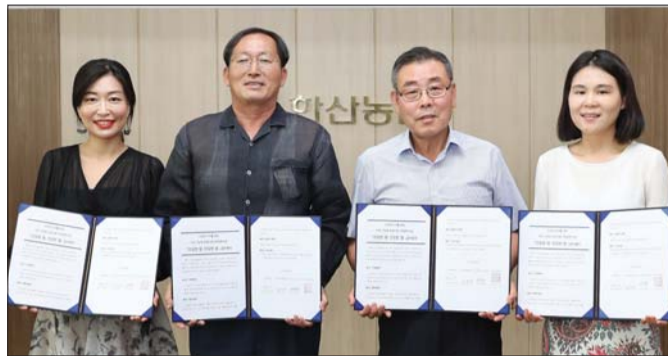
11일 업계에 따르면 업체들이 국내산 식재료를 사용할 경우 농축수산물 판로를 확대해 지역 경제에 이바지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소비자들의 신뢰도를 높일 수 있는 장점이 있다. 이에 많은 유통업체들이 경쟁력 있는 농축수산물 브랜드와의 업무협약을 통해 고품질의 식재료를 공급받고 있다. 또한 ‘청년 농부 육성’의 일환으로 친환경 농가를 체험하게 하는 행사도 진행한다.

GS리테일은 지난 8월부터 제주해녀협회와 손잡고 만든 ‘유어스 제주해녀 해물맛라면’을 GS25와 GS슈퍼마켓을 통해 판매하고 있다. 제주해녀 해물맛 라면은 제주해녀가 직접 잡은 쌀소라를 사용했다.

쌀소라 엑기스를 면에 첨가해 면과 국물에 소라 맛이 진하게 배어 있는 것이 특징이다. 제품 판매 수익금의 일부는 제주해녀협회에 기부되며, 고정적인 판매처



청년농장 체험 고객들.



/롯데쇼핑 농심켈로그가 충청남도 서천군 한산면의 12개 현미 농가를 지원하는 업무협약식을 진행했다. /농심켈로그

가 필요한 쌀소라의 판매 확대에도 기여하고 있다.

하남돼지집은 프랜차이즈로는 유일하게 국내 포장 가공육 시장점유율 1위인 도드람양돈농협과 협력 관계를 맺고 있다. 도드람양돈농협은 1등급 이상의 한돈을 하남돼지집 스펙에 적합한 지방 비율과 20mm규격으로 정형해 하남돼지집 가맹점에 공급하고 있다. 2년마다 축산물품질평가원의 평가를 거쳐 우수 축산물 브랜드 인증을 받고 있을 정도로 뛰어난 맛과 품질을 자랑한다.

또한 금성농협과의 협업을 통해 하남돼지집 전용 ‘죽향쌀’을 개발, 도농상생을 도모하고 있다. 금성농협은 친환경 농업의 메카 담양에서도 가장 토질이 좋은

곳만을 엄선해 명품화 단지를 조성했으며 한국소비자단체협의회 및 농림축산식품부가 주관한 대한민국 명품쌀 대상을 수상한 바 있다.

피자알볼로는 지난 10월 임실치즈농협과 상호발전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피자알볼로는 국내산 원유를 사용해 치즈를 생산하는 임실치즈농협과의 협약을 계기로 100% 임실치즈를 사용한 13주년 에디션 신메뉴 목동피자를 11월 16일부터 출시하게 됐다. 피자알볼로는 이진에도 진도 검정쌀생산유통영농법인과 업무협약을 맺어 친환경 흑미도유를 만들어 제공하고 있으며, 영월농협 가공사업소의 업무협약을 통해 국내 최초로 국산 고추를 활용한 핫소스를 선보이는 등

우리 농가와 꾸준한 협력 관계를 유지하고 있다.

농가를 지원하거나 청년 인재를 발굴하는 데 노력을 기울이기도 한다.

농심켈로그는 한산농업협동조합, 서천군 농업기술센터와 함께 충남 서천군 한산면의 12개 현미 농가를 지원하는 업무협약식을 진행했다. 이번 업무협약을 통해 한산농업협동조합은 농가자료 및 현황을 공유하고 벼짚환원 작업에 필요한 행정 사항을 지원하고, 서천군 농업지원센터는 벼짚 환원 전후에 해당 농가의 토양 검정 실시 및 관련 자료를 제공하며, 12개 농가를 대상으로 농업의 공익적 가치에 관한 교육을 실시한다.

농심켈로그는 현미 농가의 환경 개선

과 건강한 농토 보존 지원업무 등을 위해 친환경 프로그램을 기획하고, 켈로그 컴퍼니 펀드로부터 기금 3만불(약 3200만원)을 지원한다.

롯데슈퍼는 ‘친환경 청년농부 육성 프로젝트’의 일환으로 충남 홍성 문당환경농업마을에서 ‘청년농장 농가체험’ 행사를 진행했다. 이번 행사는 지난해 롯데슈퍼와 농림축산식품부, 충남도가 함께 업무협약식을 체결하며 출발했다. 일손이 부족한 농촌의 청년 인력을 확보하면서 친환경 농업을 활성화하는 성공 사례로 주목 받고 있다. 롯데슈퍼는 연간 10억원씩 5년간 총 50억원을 출연해 교육 및 영농 기반시설을 지원해 꿈은 갖고 있지만 친환경 농업에 뛰어들기 두려워하는 청년농부들을 지원한다. 또한 농식품부는 청년 창농 사업을 지속적으로 발굴하고 가이드라인을 제공하며, 충남도에서는 ‘농부 선발-육성 시스템’을 기반으로 다양한 교육과 멘토링 제도를 시행해 청년농부의 안정적인 창농을 지원한다.

업계 관계자는 “많은 업체들이 우수한 품질의 국내산 식재료 사용을 통해 상생발전과 도농교류의 모범적인 사례를 보이고 있다”며 “이윤을 청년농부를 육성해 농사와 상생을 강화하려는 움직임도 취하고 있다”고 말했다. /박인용 기자 parky7854@metroseoul.co.kr

한계차주 지원 위한 주택매입대상사업 사업구조도



LH, 빗더미 가계 집 매입 후 재임대

매입·임대운영·청산업무 담당 5억 이하 1주택 실거주세대 대상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주택담보대출 원리금 상환에 어려움을 겪는 주택소유자인 한계차주를 지원하기 위한 주택매입대상사업을 추진한다.

11일 LH에 따르면 이번 주택매입대상사업은 지난해 10월 가계부채종합대책과 12월 ‘2018년 경제정책방향’으로 발표된 정책의 후속조치다.

주택도시보증금이 출자한 ㈜국민희망임대주택위탁관리부동산투자회사가 한계차주가 살고 있는 아파트를 매입해 이를 다시 재임대하는 방식(sale and leaseback)으로 추진된다.

LH는 부동산투자회사의 자산관리회사로 주택매입, 임대 운영, 청산업무를 담당하게 된다.

이번 사업을 통해 전국소재 아파트 400호를 매입해 가계부채 조정과 더불어 한계차주에 대한 주거안정에 나설 계획이다.

특히 매입물량 중 일정량을 산업유기 대응 특별지역에서 매입해 주택 경기가 위축되거나 거래절벽이 발생하는 지방 부동산 경기의 연착륙을 지원할 방침이다.

주택매입 신청은 도시근로자 월 평균 소득 이하인 세대(3인 가족 기준 500만

2590원) 중 공시가격 5억 이하인 국민주택 규모(전용85㎡) 이하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실거주 세대만 가능하다.

전용면적 85㎡초과 중대형주택이나 고가주택 소유자, 고소득자, 다주택자, 실거주하지 않는 1주택자 및 주택담보대출이 없거나 단순 주택 매도자도 매입대상에서 제외된다.

부동산투자회사가 주택을 매입하는 가격은 매도희망가격과 감정평가금액 중 낮은 금액으로 하되 역경매방식을 도입해 감정평가금액 대비 매도희망가격이 낮은 순으로 매입하게 된다.

다만 매도희망가격이 감정평가금액의 90% 이하일 경우 감정평가금액의 90%로 매입하게 된다. 한계차주는 주택 매각대금으로 대출금을 상환한 후 주변 시세수준의 보증부 월세 형태로 기존주택에 계속 거주할 수 있다.

임대기간 5년간 적법하게 거주한 경우 주택을 재매입할 수 있는 우선권을 부여 받게 된다.

주택 재매입가격은 재매입시점 감정평가금액과 부동산투자회사 취득원가에 주택가격상승분의 80%를 더한 금액 중 낮은 금액으로 결정할 수 있다.

매입신청을 하고자 하는 사람은 오는 13일까지 해당 주택소재지를 관할하고 있는 LH 해당지역본부에 방문·등기우편 신청이 가능하다. 등기우편은 13일자 소인까지 유효하다. /채신화 기자 csh9101@

삼성, 애플·구글 제치고 ‘평판 좋은 기업’ 2위

2.3만명 대상 설문… 평점 78.5점 실적·제품·혁신 등 7개 영역 평가



삼성전자가 미국에서 ‘평판이 좋은 정보기술(IT) 기업’ 2위에 올랐다.

인텔·구글·마이크로소프트(MS)·애플 등 미국의 쟁쟁한 유력 기업들을 모두 제친 성적이다.

특히 다른 기업들의 경우 매년 순위변동이 심했던 데 비해 삼성전자는 최근 몇 년간 ‘톱 5’에 꾸준히 들면서 미국에서 탄탄한 입지를 구축한 것으로 평가됐다.

11일 재계에 따르면 미국 보스턴에 본부를 둔 글로벌 컨설팅 업체 리퓨테이션 인스티튜트(RI)가 최근 발표한 ‘2018년 미국에서 가장 평판 좋은 IT 기업’ 순위에서 삼성전자는 평점 78.5점을 얻으며 2위에 자리했다.

이번 순위는 미국 내에서 2만3000여명

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 결과 등을 토대로 실적, 제품·서비스, 리더십, 혁신, 시민의식, 업무환경, 지배구조 등 7개 영역을 평가하는 방식으로 매겨졌다.

그래픽처리장치(GPU) 전문업체인 엔비디아(80.3점)가 유일하게 80점을 넘기면서 1위를 차지했다. 삼성전자의 뒤를 이어 내비게이션 업체인 가민을 비롯해 HP엔터프라이즈, 인텔, 구글, 텍사스인스트루먼트, 어도비, 세일즈포스, HP 등이 ‘톱 10’에 포함됐다.

상위 10개 기업 가운데 본사가 미국이 아닌 곳은 삼성전자가 유일했다. 삼성전자를 제외하면 일본 애플이 18위로 가장 높은 순위였다.

삼성전자는 지난 2015년 1위에 올랐으나 2016년 2위로 밀렸으며, 지난해 갤럭시

시노트7 배터리 발화 사고로 5위까지 떨어진 뒤 올해 2위로 상승했다.

RI는 보고서에서 “삼성전자는 갤럭시 노트7 발화 사고로 위기를 겪었지만 공식 사과를 통해 명성을 회복했다”며 “지배구조(거버넌스) 부문에서는 상대적으로 점수가 떨어졌으나 전반적으로 우수한 평가를 받았다”고 설명했다.

소통 부문에서는 국내의 평가와 상반된다.

앞서 삼성전자 생산라인의 직업병 관련 조사를 진행한 삼성옴부즈만위원회가 올해 초 전국의 성인 3277명을 상대로 실시한 기업 이미지 조사에서 삼성전자는 ‘소통 능력’ 부문에서 현대차, SK, LG, 롯데, 포스코와 미국 구글 등에 모두 밀리면서 최하위에 머물렀다. 또 전반적인 국민 신뢰도 평가에서도 3위에 그치면서 “존경받는 기업의 조건에 부합하지 않는다”는 지적을 받기도 했다. /유서운 기자 yuni2514@

증선위, 14일 삼바 분식회계협의 결론

금융위원회 산하 증권선물위원회가 오는 14일 삼성바이오로직스의 분식회계 협의에 대해 최종 결론을 내린다.

증선위가 지난 7월 공시 누락에 대해 고의성을 인정한 데 이어 금융감독원 김리의 핵심 지적 사항인 회계처리 변경에 대해서도 고의성을 인정할지가 가장 큰 주목을 받고 있다.

고의 분식회계로 결론이 나면 국내 상장 기업 중 시가총액 순위 4위인 삼성바이오로직스 주식은 거래가 즉시 정지되고 상장폐지 실질심사 대상에 올라 상당

한 파장이 예상된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11일 “증선위가 조속히 결론을 내리려고 하고 있다”며 “특별한 일만 없으면 14일 정례회의에서 종료될 수 있다”고 밝혔다. 또 다른 당국자도 “삼성바이오로직스 건은 이번 회의 때 마무리될 가능성이 더 크다”고 말했다.

실제로 증선위는 14일 정례회의에서 삼성바이오로직스 안건을 끝내기 위해 다른 안건 심사는 잠시 미뤄두기로 했다.

사상 최대 과태료 부과 여부로 시장의 관심이 큰 골드만삭스의 무차입 공모도

에 대한 제재 건조차 지난달 17일 첫 논의 후 심의가 지연되고 있지만 14일이 아닌 28일 정례회의 때 심의하기로 했다.

증선위는 이번 정례회의에서는 사실상 삼성바이오로직스의 최후 진술을 들은 뒤 금융위원이 감리 후 제출한 제재 조치안을 의결할 전망이다.

이미 증선위원들은 수차례 회의를 통해 관련 사항을 모두 파악하고 있고 당사자들의 의견도 청취한 상태다.

외부 압박도 거세다. 시장에서는 조속한 심의를 통해 불확실성을 해소할 필요성을 제기해왔고 참여연대 등 시민단체는 ‘삼성 봐주기 아니냐’며 증선위의 조속한 판단을 촉구하고 있다. /안상미 기자 smah1@